



이토가 카즈오 최후의 강의——사랑과 공감의 교육

이토가, 카즈오

김, 선옥

박, 지민

장, 주선

(Citation)

教育科学論集, 19:18-30

(Issue Date)

2016-03

(Resource Type)

departmental bulletin paper

(Version)

Version of Record

(JaLCD0I)

<https://doi.org/10.24546/81009517>

(URL)

<https://hdl.handle.net/20.500.14094/81009517>



< 번역 >

이토가 카즈오 최후의 강의 (糸賀一雄の最後の講義)

—사랑과 공감의 교육 (愛と共感の教育)—

저자 : 이토가 카즈오 (糸賀一雄) 번역 : 김선옥 (金仙玉) 박지민 (朴祉玫) 장주선 (張主善)

시작하며 (はじめに)

이 책은 1968(쇼와昭和43)년 9월 17일, 시가현(滋賀県) 아동복지시설 등 신입직원연수회에서 ‘시설에서의 인간관계’를 주제로 시가현에서 열린 시가현립 오우미학원(近江学園) 초대원장 고 이토가 카즈오(糸賀一雄) 선생의 강의 녹음 테이프를 정리한 것이다.

선생은 예정 시간에서 조금 연장된 약 2시간에 걸친 강의가 끝나기 직전, 갑작스럽게 무너지듯이 그 자리에 쓰러졌고, 일단 의식은 돌아왔으나 ‘이 아이들을 세상의 빛으로(この子らを世の光に)’를 유언으로 남긴 채 다음 날인 18일 오후 2시 15분, 너무나도 짧은 54년의 생애를 마감하였다.

이 강의록은 “사랑과 공감의 교육 - 최후의 강의”라는 제목으로 다음 해인 1969년 하쿠쥬(柏樹)사에서 출판되었으나 그 후 절판되어 한참 동안 복간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에게는 많은 저작과 논문이 있는데, 특히 만년에 가까워 출판된 “이 아이들을 세상의 빛으로 - 오우미학원 20년의 소원”(1965년 하쿠쥬사 발간. 절판되어 그 후에 2003년 일본방송출판협회에 의해 복간) 및 “복지의 사상”(1968년 일본방송출판협회 발간)과 나란히, 이 강의록은 선생의 일생에 걸친 열정과 실천으로 인도받은 장애아·장애인 교육과 복지에 대한 깊은 사색의 결정(結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근원에 있는 애정의 성장, 특히 교육에 대한 언급은 압권으로, 선생의 복지 사상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이 강의에는 선생이 스스로 테이프 레코더를 가져 가 수록한 테이프가 남아있다. 그 목소리는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윤기 있고 투명하며, 명료한 말로 뜨겁게 강연하는 그 어조는 지금도 그렇고, 듣는 이들을 끌어 당긴다.

선생이 돌아가신 지 40년의 세월이 지났고, 직접 선생의 헛기침을 들었던 분들도 극히 줄어들었기에, 강의 중에 역설하며 반복해 말하고 있는 부분이나 부드러운 어조 등, 그 마지막의 열정 가득한 박력을 조금이라도 현장감 있게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싶어, 이번 복간을 맞이하여 새롭게 테이프의 내용부터 신기로 하였다. 따라서, 책 제목도 “이토가 카즈오 최후의 강의 - 사랑과 공감의 교육”(개정판)으로 하였다. 안타까운 것은, 이 강의의 첫 부분과, 선생이 쓰러지기 몇 분 전은 마이크 고장 등의 이유로 테이프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중간 부는 테이프 끊김)이 있다는 것이다. 그 공백부분에 대해서는 당일

강의를 듣고 있었던 오우미 학원의 우노 아사코(宇野あさ子) 지도원, 쿠제 미치코(久瀬美智子) 보모 2명의 노트를 바탕으로 보충한 초판본을 원용하고 있는 점을 양해 바란다. 선생이 강의용으로 메모를 작성했던 자료가 남아 있어, 중반부의 강의 내용을 미루어 짐작하는 데 참고가 되었으므로 말미에 수록하였다. 또한 본문의 호칭과 용어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을 존중하여 강의록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복간을 선뜻 받아들여주신 이토가 후사(糸賀房)님의 이해와 호의에 마음 깊이 감사함과 동시에, 이 책의 출판을 진력을 다하여 열심히 권해주신 나카가와 서점(中川書店)의 나카가와 신스케(中川信介) 씨에게 예를 표한다. ‘학교든 복지시설이든 무릇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모, 교사와 아이들 사이에 좋은 인간 관계를 만드는 것을 통해 아이들은 좋은 방향으로 인간적인 성장을 해 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좋은 인간 관계”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지금의 테마인데, 제 서툰 경험도 섞어가며 이야기 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참고가 된다면 행복할 것입니다.’라는 취지를 말하고, 이토가 원장 선생은 먼저, 보육원을 예로 들면서 강의를 시작하였다.

아이들은 교육의 주인공 (子どもは教育の主人公)

……, 그건 말이죠, 보육원의 경우는 통원(通園)을 하고 있지요. 수용시설의 경우는 긴 시간 동안 부모들로부터 밤낮없이 생명을 맡아 책임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 점에서 매일 집에서 통원하는 것과, 책임지고 맡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한 근본적 상이점은 존재하지만, 한편으로 집에서 통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매일 부모가 돌보아 준다는 뜻입니다. 나이트 케어는 부모가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데이 케어 쪽(낮의 돌봄)을 보육원에서 해 주는 겁니다. 이 돌보아준다는 것은, 내용으로 보면 그냥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와 동시에 교육을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으면, 변화가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옛날 보육원이라는 건, 옛날 식으로는 농번기 탁아소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교육보다는 보육에 더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온 집안이 고양이 손까지 빌리고

싶을 정도로 일이 많았는데, 노동생산성이 높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 도움이 되기보다는 어른들의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방해꾼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맡아 줄 탁아소라는 형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이들로부터 자유로운 어른들은 일에 전념할 수 있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기에 그런 필요성은 커질 수 있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농번기 탁아소, 일시적 탁아소 이외에도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시대가 변하고, 아이를 맡아 준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라는 취학 전 유아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했고,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어릴 적 버릇은 늙어서까지 간다(三つ子の魂百まで)’라는 말처럼, 3세부터 취학까지의 교육, 좀 더 나가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조기 대책, 조기 교육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점차 많아지고, 사회적으로도, 교육의 세계에서 그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조에 맞추어 아이들을 맡아 돌보는 장소에서는 보육뿐 아니라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농번기 탁아소처럼 일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보육소라는 것이 등장하였는데, 이곳에서는 유치원의 교육내용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육소라는 것의 존재 이유는 양호(養護)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보육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회적인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교육적으로, 적극적으로 유치원이 존재하는 이유와는 다소 엇갈린 듯 보이지만, 사회적 조건 중 하나인 보육이 결여되어 있다는 그런 조건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당연히 보육이 결여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육이란 결국 교육입니다. 교육이 없는 환경에서 어떻게든 그 환경의 결함을 메워나가야만 한다는, 그런 의도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교육을 내용으로 한다는 것이 보육소 본래의 사명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용적으로 유치원이 본래 지향하고 있는 것과 보육원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환경 조건이 한쪽은 교육적, 적극적인 유아교육의 의도를 솔직하게 갖고 있고, 다른 한쪽은 그런 조건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육소에 맡긴다는 것이 다른 것일 뿐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내용은 완전히 같은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발달하고 어떤 식으로 교육 받을 권리를 갖는 지를, 가만히 음미하고, 매섭게 지켜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육소도 유치원도 본질적으로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같은 곳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점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견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

고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결여되어 있다’라는 표현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즉 보육이나 양호의 측면이 결여되어 있다는, 그런 표현에 의해 규정된 아이들 말입니다만,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은, 보충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결여에 의해’라는 것이 무슨 뜻이나 하면, 역시 ‘인간으로서의 건전한 발달’이 저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되겠지요. 발달이 방해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건강한 발달이라는 것을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의 주체임을 생각해야만 하는데, 그것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은 환경이나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보장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나가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 수용시설 같은 곳의 경우와 대단히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지요? ‘수용시설의 현대적 특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본서 76쪽). 이 말을, 한 번 들어서 ‘보육소의 현대적 특질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다시 적어 보면 어떻습니까? 첫 부분을 먼저 읽어 보면,

‘수용시설에 아동을 보내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 이유에 맞는 시설의 종류가 있고,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금은 13종류에 이른다. (13종류는 이 당시까지이며, 올해는 중증심신장애아시설이 아동복지법에 등장했으니 그것까지 하면 14종류가 되겠지요. 여기를 14종류로 정정하겠습니다.) 각각의 시설은 전문적인 특색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분류처우(分類処遇)라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요. 분류처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대상 아동의 장애의 다양성에 따라’, 즉, 여러 장애가 복잡다기하게 겹쳐 있다는 것이지요. 한 가지만 갖고 있다고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장애를. 두 가지, 세 가지 장애를 여러 개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성에 의해 종종 동요되어 왔다. 환경적 장애’, 여기서 지금 보육소 같은 곳은 환경적 장애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신체적 장애’, 여기서 지체부자유아 시설 또는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시설은 같은 아동 복지 시설이지만 신체적 장애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그리고 ‘정신적 장애’라고 하면, 정신박약아(精神薄弱兒)는 정신적인 발달장애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각각에 대응하는 전문적인 시설의 처우를 받고 있다고 해도, 이중 삼중으로 장애가 중복, 복합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의 경우를 중복이라고 말하고, 삼중 이상의 경우는 복합 장애라고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복이라고 하지 않고 복합이라고 하는데, 더욱 많은 두 개 이상의 경우를 복합 장애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경우는, ‘단일적으로 분류된 시설에서는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새로운 역할과 기준을 가진 시설이 등장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후 20여 년이 흐르는 동안 단순한 정신박약아나 지체부자유아 시설뿐

만이 아니라, 그 속에 중도동(重度棟)이라는 것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일이지는 합시다만. 즉 대단히 중증의 장애를 가진, 중증 장애의 정신박약(精神薄弱)¹ 또는 지체부자유의 경우처럼 중도의 장애를 가진 중도 장애아를 받는 건물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라벨주의와 격리주의 (レッテル主義と隔離主義)

또 그 밖에도, 교호원(敎護院: 소년원)이 있습니다. 교호원으로는 단카이(淡海) 학원이 있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이 상담소에서 단카이 학원으로 조치를 받기 전, 즉 단카이 학원에 가기 전에, 그 아이들은 결코 단순히 형벌을 받기 위해 그곳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겠지요. 그렇지요? 형벌일까요? 형무소도 요즘에는 단순히 나쁜 짓을 했으니 벌을 받는 것이라는 식의 형무소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런 면도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형무소 안에서 깊게 반성하고, 또 형무소는 그것을 교정하는 것이지요. 교정이라는 말은 고친다는 뜻입니다. 즉 교육기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형무소의 역할이기도 하다는 것, 단순히 양형만이 아니라, 교정의 역할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하물며 아동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히 더욱 그래요. 아동은 성장·발달해 가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의 기회이기도 하다. 아이들은 교육을 받을 대상이며 교육의 주체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호원의 경우, 그냥 나쁜 일을 한 벌로 그곳에 들어간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걸 정말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오히려 교호원이라는 것은 교육기관이고, 교육 내용이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말하자면, 단지 '읽기·쓰기·산수'를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교호원의 교육 내용은 전인격(全人格)적인, 인격(パーソナリティ: personality)을 정말로 보다 나은 인격으로 높여가는, 또는 좀 더 말하면 더욱 깊게 하는, 인격의 형성인 것이에요. 그런 쪽으로 문제를 좁혀 가면 그것은 단순한 지식 교육(知育), 머리 교육, 지혜, 공부뿐만이 아니라, 어느 쪽이나 하면, 정서적이며 인격의 토대가 되는 것을 풍부하게 형성해 가는 것이 교육의 내용이며 목표여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즉 그런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이 교호원에서 지도해야만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호원의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보면 여러 가지 사회 부적응이나 비행 청소년, 우범 소년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는데, 실은 그런 아이들이 교호원 안에서 정서장애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교호원은 치료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치료적인 교육기관이라고 말하는 게 알맞겠네요.

그렇게 되면 양호시설도 비슷합니다. 양호는 적절치 못한 환

경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입니다. 양호아동이라는 것이 말이지요. 지금 시가현에 있는 쇼난(湘南) 학원이나 고우카(甲賀) 학원, 모리야마(守山) 학원 같은 양호시설의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보면 예전에는 가정에 있거나 지역 사회의 여러 조건 속에 놓여 있었는데, 그 조건을 살펴 보면 양호 아동은 환경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아이들 중에는 정서장애를 가졌다고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가현에는 정서장애를 위한 단기 치료시설은 없지만, 예를 들면 교토(京都)의 아오바 기숙사(青葉寮)는 정서장애 단기치료기관입니다. 적어요. 이걸 아직 전국에도 대 여섯 군데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곳은 정서 장애를 치료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의 경우를 생각했을 때 그 결과로서, 사회적으로 보면, 비행이나 우범이라는 구조가 정서 장애로부터 도출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비행소년, 우범소년은 정서장애를 토대로 하고 있다. 현재의 정서장애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것이 앞으로는 현대적인 전문 연구 영역이 될 것입니다.

단기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또는 할 지도 모르니까 가정과 분리하여 이 시설에 넣어 두면 된다는, 그런 단순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호원의 계열 중에 이것이 요육(療育) 기관이라고 한다면, 그 계열 속에 정서 장애 치료기관이 있어도 괜찮을 겁니다. 더욱이 교호원과 같은 치료기관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양호시설 간의 깊은 관계는 아주 바람직합니다. 교육 내용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하나도 모른 채, 그리고 결과만으로 분류 수용하는 것과 같은, 또는 분류처우라는 것만으로 보는 것은, 대상 아이들에게 라벨을 붙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대단히 안이한 생각입니다. 획일주의적, 형식주의적인 라벨을 붙이는 작업만으로 아이들의 처우가 결정된다는 것. '이 아이는 애정결핍형'이라고 이마에 딱지를 붙이고는 말입니다. 애정결핍형 아이가 거기 생기는 겁니다. 그런 식의 어딘가 몹시 단순한, 그 속사정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정말 무미건조한, 정서도 아무것도 없는 관점. 어른들이 그런 정서장애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의 정서 장애가 생기기도 전에 말이지요. 그런 시각이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어른들이 정서장애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교사가 먼저 여유로운 마음을 (教師がまず豊かな心を)

이런 것은 관료주의에서 자주 보입니다. 오늘은 관공서 분도와 게실 텐데, 잠시만 귀를 막고 들어주세요. 관료주의란 무엇이라고 하면, 정서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틀에 박힌 관점으로 밖에 볼 수 없어요. 이 틀 속에서 밖에 세상을 볼 수 없는 거지요. 탄력 넘치는, 깊은,

¹ 1960년대에는 사용되고 있었으나 현재는 '지적장애'로 개정되었다.

정말 깊은 속까지 볼 수 있는 시각, 넓은 관점이라는 것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도 그렇습니다. 지금 관료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학교 교육도 대단히 관료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보는 눈이 고정적으로 바뀌고 마는 겁니다. '교육이란 읽고, 쓰고, 계산하는 것' 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읽기·쓰기·산수를 잘하는 사람이 교육을 잘 받은 훌륭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읽기·쓰기·산수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하면 정신박약아는, 이 다음에 나옵니다만,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정신박약아들의 인간적 가치는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또 실제로 정신박약아는 가치가 없다고만 여기는 어른들이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합니다. 관공서뿐만이 아니에요. 교육계에서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학부모님들에게서도, 자기 자식만큼의 가치가 있다고는 인정하지 않는 비참한 상황이 정신박약아를 둘러싼 사회 현실이라는 것이, 아직 일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비뚤어진 생각으로부터 해방되어야만, 해방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시설의 교육자입니다. 보육원의 보모이며, 시설의 지도원이며,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이기도 한 우리들은, 지금 갖고 있는 비뚤어져 매마른 세상을 보는 눈, 아이들을 보는 부정적 시선을 거두고 긍정적 시선으로 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은 변화와 정제라는 갈림길에서 선택을 위한 대결이 필요하며, 발전을 위한 그러한 대결이 우리들 전문직에게 있어서 큰 매력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가는 것만큼 매력적인 것은 없을 것이고 그런 직업은 개인에게 있어 상당한 매력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자기자신과의 대결을 하지 않는 직원은 쓰레기(カス)나 마찬가지로는 겁니다. 차라리 인형을 고용하는 게 나을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인간을 더 발전시키고 긍정의 변화를 형성해 가는 것처럼, 교육의 본질적인 구조는 관계의 형성과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 보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인도해 갈 수 있으며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과의 대결을 통해 더욱 발전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매력이 있는 일이며 삶의 보람이겠습니까.

수용시설이든 가정이든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간에 교육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그 본질적인 구조인 교육을 통해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 지가, 오늘의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요육 (療育)² 과 정서의 안정 (療育と情緒の安定)

그러니까 여러 시설이 고안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더욱 중도의 정신박약과 중도 지체부자유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중증심신장애아 시설의 등장을 보거나 하면', 여기서 '등장을 본'다는 부분은, 올해가 아니라 작년부터 중증심신장애아 시설이라는 것이 아동복지법의 13개 시설에 더하여 추가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후생 대신(厚生大臣)의 자문에 답신한 심의회의 끝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옥신각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증심신장애아 시설, 시가현으로 말하면 비와코(びわこ) 학원 같은 것은, 정부의 견해로는 중증심신장애아 시설이라는 형태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중도 정신박약과 중도 지체부자유 모두를 갖고 있는 것을 중증심신장애아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중증심신장애아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반대예요. 중증심신장애아 시설에서 받아 주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정하다 보니 누락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누락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중도 지체부자유는 아니고, 가벼운 지체부자유이지만, 중도 정신박약과 동시에 정신병이 있는 경우는 비와코 학원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럼 어디에 가면 됩니까? 그렇게 되면 말이죠, 그 사람은 시각 장애도 청각 장애도 아니고, 가벼운 지체부자유인데 정신병이 있고 그리고 정신박약이라는. 그것이 심한 정신박약이건 아니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와코 학원에는 정부의 견해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오우미 학원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비와코 학원보다도, 취급이라고 합니다만, 그 교육 내용이라는 것은 정신 의학과는 제후가 특히 치료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우미 학원의 중도 대상자로서 받는다는 것은 비와코 학원보다도 더 어려운 작업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중증이라는 대상을 설치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누락되는 사람들이 이곳 저곳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대상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처우의 특수성을 점점 전개시키고 있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현재는 아동정신의학적인 배려를 필요로 하는 자폐증아 문제가, 아동 복지 분야에서 시설 처우 대상으로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동향의 아래에 깔려 있는 한 가지 사고방식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아동의 수용 시설이

² 이토가 카즈오는 요육에 관하여 『복지의 사상』에서 독일의 'Heilpädagogik' (치료 교육)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 '병원과 시설을 지양한 것이라는 비전',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을 그 내용으로 하려는 노력' 등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이 경우 강조되는 것은 '새로운 "교육"의 비전을 그리'는 것, '시설양호가 요육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널리 획득하여 그것을 중핵으로 한 시설의 근대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糸賀一雄『福祉の思想』日本放送出版教会, 1968, pp. 136-145).

(이것은 보육소라고 바꾸어 말해도 괜찮습니다. 아동 시설이라고 일반적으로 단순히 수용적인 기능, 단순 보호적인 기능으로부터라고 해도 괜찮으리라 생각됩니다.) 단순한 수용적 기능에서 점차 탈피하여 새롭게 “요육” 이라는 근대적, 현대적인 과제로써 다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점을 제대로 파악해 두길 바랍니다. 보육소든 시설이든, 통원이든 수용이든 간에, 이 부분을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아이들을 맡았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 돌려 보냈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맡았습니다라는,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맡은 시간 동안의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으로써는 결코 단순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장애의 중복성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 장애라는 것은 만인이 갖고 있는 장애이고, 이름을 지어 딱지를 붙이면 자폐증이나 조울증, 정신분열, 뇌전증(Epilepsy)·간질 또는 뇌성소아마비 같이 여러 이름이 붙습니다.

지체부자유다, 정신박약이다, 이름을 붙이는데, 그런 것에 의해서 일차적으로도 이차적으로도 그 성격이 형성되어 갑니다. 여러분이 보육소에서 경험하는 것은, 이차적인 성격 형성에 대단히 영향을 미쳐요. 말하자면 태어날 때부터의 성격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쪽 가정에서 쑥쑥 자랐다가 보다는 여러 장애의 단편을 사회에 반영하고, 그 사이에 한 단계를 거침으로써 한 번 더 자기 자신의 성격 형성에 작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지능이 낮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능이 …… (테이프가 살짝 끊김)

‘…… 또 보육소는 단순한 탁아소인가 질문해 보면, 절로 분명해 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동의 수용시설의 다양한 인간 관계를 아동 요육의 장의 인적 환경으로서 받아들이는 지향적 태도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을 지향한다. 즉 그것을 제대로 마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것이라고. 그런 방향으로 사고하는 태도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더욱 깊게 검토해야 한다.’ 그 뒤에 적혀 있는 것은, 수용 시설의 특질은 요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은 부모를 대신해야 한다는 것이고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수용 시설의 특질입니다. 부득이하게 ‘가정을 대신한다’ 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지만 가정의 기능의 일부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가정적인 기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근원적인 것은 정서적인 안정입니다. 기능의 한 가지는 마음의 안정입니다. 가정의 기능이라는 것은 아이에게 있어서 안정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따뜻한 모습이란. 그것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정서가 불안정해 지고 항상 동요하며 늘 위험하고 불안한 상태,

양호가 결여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적인 기능의 일부가 파괴된 것을 양호가 결여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호 시설이라는 것이 생겨났고 그 기능을 어쩔 수 없이 대신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양호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수용되면 점점 더 위기감과 불안정성이 증대하는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수용 시설에 들어간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비참하고 무서운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요육의 역할을 다하려고 하는 시설이 있다고 해도, 그 시설이 어쩔 수 없이 가정의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정을 대신할 수 없다면, 아이의 정서안정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시설이라면, 정신박약인 채 가정에 그냥 있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아이들은 정서안정을 위한 지원이 최우선이어야만 합니다. 치료 이전의 문제가 수용 시설에 있다는 것을 저는 강조해야만 하겠습니다.

생명의 안전과 그리고 정서의 안정, 이런 것이 토대가 되기 때문에 ‘요육’ 이라는 움직임이 그 토대 위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요육을 위해 그 안정성이 파괴되어도 된다는 것만큼 바보 같은 것도 없어요. 요육은 정서의 안정을 내포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지만 이런 것을 제대로 알아두지 않으면 안 돼요.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하지만, 부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 깊게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오무미 학원을 건설한 이래 올해로 딱 23년이 됩니다. 이 23년간 여러 경험을 해 왔습니다. 23년을 요약해서 말씀 드린 것이 지금 여기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이야기 한 것입니다.

요육의 내용을 어떻게 향상시킬까, 기술을 어떻게 할까와 같은 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아이들을 받아들이려면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안전과 그 정서의 안정이라는 것은, 또 그것을 위해 환경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비해야 할 환경에는 물적 환경과 인적 환경이 있습니다. 정원을 아름답게 하여 꽃을 피우는 것도 좋겠지요. 그리고 선생님과의 관계, 아이들끼리의 관계, 동료교사간의 관계와 같은 인간관계도 하나의 아이들의 환경입니다. 그 인간관계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 우리들이 책임을 갖고 어떤 식으로 키워 나갈 것인가, 이것이 지금의 주제인 ‘시설에서의 인간관계’ 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전제를 지금 말씀 드린 겁니다. 이 대전제 위에서 모든 꽃이 피어 오를 것입니다.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 (自分の要求を表現できない子ども)

아이들 간의 인간관계나 아이와 교사 간의 인간관계, 동료교사간의 인간관계. 예를 들면 아이들은 어떤 가정을 바라고 있을까요? 아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바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아이, 세 살 정도의 아이는 자기가 어떤 가정을 원하는지, 어떤 인간 관계의 가정을 바라는지를 스스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시설의 직원으로서 어른이니까, 우리가 일하는 조건이나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하고 싶다와 같은 조건을 얼마든지 이야기합니다. 일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위해 조합을 만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세 살짜리 아이나 한 두 살짜리 아이가 스스로, 잘 길러 주십사 하고 조건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아이들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이 가능합니까?

민주주의 원칙은 대표자를 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방법에 의해 그 대표자, 대변자가 상담을 하고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런 것에 의해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할 수 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바라고 있는 것은 거기서 실현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항상 그 대표자를 보내는 것이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방법을 아직 모릅니다. 정신박약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발달이 두 살, 세 살 정도에 그치고 있는 그런 정신박약인 사람들은 스무 살이 되어도, 서른 살이 되어도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나 헨디캡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도 여기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요구는 대체 누가 대변해야 합니까?

보육소든 수용시설이든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여러 시설에 있어서 대상자의 이익을 진짜로 대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일하는 본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스스로에 대해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그 사람의 이익은 누가 대변합니까? 그것을 시설에 있는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잊으면 안돼요. 그것을 양립시키려 노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교사의 회생에 의해 아이들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회생으로 교사의 이익만이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과 교사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함으로써 현재의 가장 큰 행복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를, 정말 힘들고, 항상 만족스럽지만은 않지만, 그 안에서 좋은 무언가를 만들어어나가는 것이, 그런 겸허한 바람이, 진정한 싸움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아이들의 진정한 행복도 없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가 좋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틀림없어요. 사이가 안 좋아 늘 싸우는 부부가 있는, 부부싸움만 하는 그런 가정을 보면 아이는 몹시 힘든 기색이 보입니다. 마음이 정말로 안정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사이가 좋은 것. 집 안이 항상 따스하고 사이가 좋은,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고 있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면,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말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훌륭하게 자랍니다. 늘 으르렁대고 싸움만 하는 가정, 불화와 불신이 지

배하고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이면 몸과 마음이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그 아이의 인간 형성에 꽤나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가정을 대신하는 기능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보육소나 시설에서는 선생님들이 사이 좋게 지내야 하는 겁니다. 싸우면 안돼요. 다툼은 아이들 앞에서 하지 말고, 그리고 아이들이 없는 곳에서 의견이 다른 부분은 조정하고, 싸우고 싶으면, 가끔씩은 언쟁 해야 할 때도 있겠지마는, 그럴 때는 해도 되지만 아이들 앞에서 상대방을 헐뜯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아이의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예요.

어른이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요육이고 뭐고 말하기 전에 그 전체인 거니까요. 우선 그런 것을 하나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육에 대해 궁금한 경우는 그 11항을 빠르게 읽어주세요. 요육이라는 말은 이미 일본뿐만이 아니라 옛날부터 외국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료와 교육, 요육이나 교육적 치료라던가 여러 가지 치료와 교육의 문제를 포함하여 요육이라고 말합니다. 독일어로 Heilpädagogik(=curative education) 이라는 말이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 요육과 관련하여, 치료라는 말도 대단히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교육도 단지 단순한 지식 교육뿐만이 아니라, 아까 잠깐 말씀 드렸듯이 대단히 넓은 의미로써,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치료와 교육을 통합한 형태로서의 요육은 12항에 적혀 있듯이(본서 74쪽), “치료”와 “교육”을 통합한 형태로서의 “요육”이란 무엇일가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보편 타당한 형식적 해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형식적으로 설명되어 봤자 소용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발달 단계를 보여주면서 다양한 심신의 장애, 환경의 저항과 싸우고 있는 대상과 함께 노력하는 속에서 실천적으로 해명되어 가는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육이라는 것의 구체적 내용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동시설 내에서 어떤 요육을 실천하고 또한 실천하려고 하고 있는가. 항상 그것이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사람으로 태어나 인간이 된다 (人と生まれて人間となる)

이런 관련을 근거로 인간관계를 탐구해 나가고 싶습니다만, 인간관계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항목으로 바쁘게 여기 적어 두었습니다만(본서 74쪽), 제 2의 ‘인간관계에 대하여’, 이것이 1번과 2번으로 두 개, 또 13항에는 3번이네요, 3개를 골라 두었습니다. 일단 이 안에서 가장 간단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그대로 지나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를, 이 1번의 4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것은 이론이니가 그냥 지나갑시다.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 사회적인 존재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人) 간(間)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경우 사람이라는 것은 개체로서의 사람입니다. 개체로서의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 인간이 되어간다. 인간이 되어 간다라는, 되어 간다라는 것. 마침 그것에 대해서는 하쿠인 선사(白隱禪師)의 위대하고 엄청난 이야기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제가 하쿠인 선사를 떠올린 이유는, 사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 인간이 되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심오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쿠인 선사라는 훌륭한 스님이 이 “야선훈화(夜船閑話)”라는 책을 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선훈화” 덕분에 저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천천히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오늘은 간단히 결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쿠인 선사가 젊은 시절, 여러분 정도로 젊을 때 ……(첫 번째 테이프는 여기까지)…… 겨우 도달하여 인간 본래의 불성이 그러한 즉 성불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야선훈화”라는 책으로 쓴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 소집 영장을 받고 돛토리(鳥取) 연대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병이 나서 육군 병원에 들어갔고, 그때부터 미열이 계속되고 낮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때 이 “야선훈화”가 떠올라서 집에서 이 책을 받아 침대에 누워 음미하며 읽었습니다. 수식관(數息觀)이라고 하네요, 하쿠인 선생은 수를 세는 것, 스으, 스으, 숨을 쉬면서 수를 세는 것. 이 수식관이라는 좌선법으로 돌파했습니다. 저도 따라 해 보려고 했지만 열이 나서 침대에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럼 누운 채로 좌선을 해보자고 생각했어요. 침선이라고 해야 하네요. 좌선이 아니라 침선을 하자 싶어서 침대에 누운 채로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고 스으하고 숨을 쉬고 있으니 열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개운해졌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 “야선훈화”는 아주 좋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소한 경험이 있는데, 인간은요, 사람으로 태어나지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인간이 되어간다는 것은 당연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요. 본래 불성이니까 인간이 부처님께 성불하자는 것과 같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사람으로 태어나 인간이 된다. 그것은 본래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회적인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것을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교육이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인간이 된다. 인간(人間)이라는 것은 사람(人)과 사람(人)의 사이(間)라고 씁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사람의 사이라고 쓴다. 단순한 개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인간, 인간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회적 존재라

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관계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야말로 인간의 존재의 근거라는 것,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에 인간의 존재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 인간이 된다, 된다는 것은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일생이라는 것, 내가 살아 있는 것, 산다는 것은 정말 사회적인 존재로서 살고 있는 것이예요. 살아가는 것은 노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공감의 세계 (共感の世界)

그러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 공감의 세계라는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자기이기심, 자신의 존재만을 생각하는 것과는 결단코 다른 말일 테지요.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하면, 정신박약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신박약아로 태어난 아기가 세계 전체 유아 중 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100명의 아기 중 3명 정도. 따라서 삼십 명의 아기 중에 한 명 정도가 정신박약아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정신박약이라고 할까, 혹은 발달(지적)지체라고 할까, 정신의 박약이라 하지 않고, 정신지체라는 표현도 있고…; 부르는 표현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체의 늦춰짐, 최근에는 지적 능력의 발달이 늦어지는 사람을 심리적 연습이라는 표현을 이용하는데요. 결국 정신박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게 되었네요.

실제로 누구나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태어날 때 모두 그렇습니다. 모든 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일본어를 구사할 수는 없지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나는지 다들 아실 테죠?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 사진을 찍었다면 그 모습을 보고, “이게 과연 나란 말이야? 엄청 별났네”라고 할지 모를 일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손자가 생겨서 보러 한번 갔는데, 정말 핏덩이 같은 모습인데라고요, 그러다 점점 자라 너무나도 귀여운 모습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중증장애아와 같이,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는, 몸 뒤집기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였네요. 다만, 영영 울뿐이지요. 소리만 외칠 수 있을 뿐, 중증장애아 상태입니다. 스스로 물건을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지요. 우선 잡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낼 수조차 없으니까. 거의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할 수 있지요. 그것이야말로 실존철학에서는 해석할 수 있는 존재, 그야말로 현존재로서의 그냥 < 존재하는 존재 > 이지요. 의식조차도 발달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런 상태를 중증장애아라고 우리는 부르지요, 중증 중의 중증, 귀도 들리지 않고, 눈도 보이지 않는, 말할 수도 없고, 몸의 자유도 없는 지체부자유 상태, 그냥 전신장애아네요.

그러한 인간이라는 상태에서 점점 정신이 발달하고, 사람 대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그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 관계 안에서, 그 아이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 신체도 강해져 가는 것은 물론. 몇 번이고 수저나 방울을 집었다 놓쳤다는 반복해가며 손의 훈련을 해나가는데요. 두 다리도 훈련돼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던 중 어딘가에 장애가 남은 사람은, 정신박약, 중증심신장애이라고 바꿔 말하는 장애를 가진 상태라 불러줍니다. 몇 개의 장애의 전초에 발을 담그는 듯한 벽에 부딪쳐 막혀 있었지만, 조금씩 조금씩 극복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두는 언제나 그 장애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증심신장애라, 정신박약이라 불리는 사람들과이 그리고 우리들과 실제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 본래의 발달관을 갖고 뿌리가 하나라는 공감의 세계를, 이치를 넘어서, 공감의 세계라는 것의 근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소원합니다.

애정 어린 보살핌 (愛の育ち)

다만 그것을 정말 공감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싸움이지요. 긴 세월을 걸쳐, 수년 수개월 동안, 그 인간적 애정이란 것이 생깁니다. 교육적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서는 수많은 시간이 요구됩니다. 너무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순간, 인간적 애정이라는 것은 슬며시 자리잡게 됩니다. 그리고 곧 우리들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인류에 있어서의 사랑, 혹은 자기 자신을 주시할 수 있게 되는 사랑, 그러한 것에 의해 우리들의 마음이 성장하여 간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한번에 도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이 인간으로써의 도행에 이루어지는 것에 있는 과정이라 한다면, 우리는 필히 달려갈 것이며,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우리 본연에 이러한 과정이 내재되어있음을 저는 짐작해봅니다.

여기에 인간관계 라는 점에서, 애정 어린 보살핌, 교육애의 고취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좀 이치를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자기자신의 본연의 마음의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린다 할지라도,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도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과정인지라, 그 과정이 고단할지라도, 진심으로 내 마음에 사랑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라면 가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어딘가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어딘가에 척하니 붙어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이 자라기 위해서는, 사랑, 미움의 미묘한 애증이라는 관념 안의 애정이라는 것이 우선 자라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 사이 ‘여명의 전에 놓인 아이들 (夜明け前の子どもたち)’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요, 비와코 학원을 무대로 한

작품이었죠. 그것을 5월 4일에 동경에서 처음으로 상영하였습니다. 호노문 (虎ノ門) 의 국립교육회관에서 였군요. 그때에 이전부터 황태자전하가 큰 관심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초대하였지요. 미치코 여전하 (美智子妃殿下) 내외가 관람차 방문해주셨습니다.

거기에 스즈키 (鈴木) 라는 히가시미야의 궁궐의 관리자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 함께 와, 제가 마지막 즈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 히가시미야의 대부상이, 처음에는 무서울거 같았소, 라고 말했습니다. 으스스한데요, 엄청 무서울 줄 알았는데, 2시간쯤 지났을 때일까요, 그 영화가. 관람하는 그 시간 동안, 나베양, 미쯔이군, 시몬군.. 영화에 나오는 그 아이들이 너무 귀엽게 느껴지는군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스즈키 씨. 당신의 지금까지의 비평중 제게 가장 감사 드리고 기분 좋게 들은 비평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스즈키 씨, 현장이라는 것은 교육이다 시설이다라고 말하는 현장은 말입니다, 아동복지의 일반적 상황은요,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것을 뭔가 딱 한번의 정의로 날카롭게 내려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지금 아이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한 아이 한 아이에 대한 귀여움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이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 그렇습니까? 라며 스즈키 씨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뿌리를 내리다 (根を張らせる)

그 이후로 얼마 후 황태자전하와 비전하가, 이것은 사실 여담에 지나지 않지만, 두 분이 저에게 도쿄에 온다면 차라도 한 잔하자고 말씀하셨고, 거듭 연락을 주셔서, 강의를 시키거나 하지 않을 테니, 편안한 마음으로 원고도 준비 없이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얼마 후 약속한 날을 맞춰서 두 분을 뵈러 갔습니다. 두 분은 절 기다려주고 계셨고, 한 시간 정도의 다화회 (お茶を飲む会) 를 생각했으나, 1시간 반 정도 더 하게 되었고, 결국 3시에 시작된 다화회가 5시 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두 시간 반 동안 끊임 없는 대화로, 홍차를 다시 채워가며, 열정적인 대화가 오가게 되었지요.

그때의 대화는 그 영화이야기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보육에 대한, 어린이를 어떠한 식으로 키워 내야 하는가, 어린이를 어떠한 식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가 주요 화제였지요.

여러분이 시설에서 선생님의 입장 혹은 보모의 입장에서 조금 벗어나 생각해봅시다. 이곳에 물론 두 세분의 남성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여성분들이시네요 장래에는 어머니가 되실 분들. 곧 애 키우는 입장이 되겠네요. 지금은 다른 사람의 아이를 돌보고 계시지만. 얼마 후면 자신의 아이를 키우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자기 아이를 키울 때 혹은 타인의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로

이지만, 정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이것이 황태자전하의 부인되시는 분과의 대화에서 가장 주된 이야기였죠. 끝이 없는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이야기는.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모두가 관심을 갖게 하는 주제이지요. 특히 자기자식에 관한 문제로 대입된다면, 거의 절대적 관심이 라고 할 수 있지요.

다시 이야기의 내용으로 돌아가보면, 하나는 이런 점입니다. 일명 치맛바람 어머니라는 말이 있지요. 조금 부정적 이미지가 있지만, 교육에는 정말 열성적인 어머니의 경우를 나타내는 표현인지라, 사실 저는 나쁘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왜 나쁜 이미지가 붙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요. 그 중 하나는 말입니다. 자신의 아이가, 다소 타인의 아이를 짓밟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다른 아이들에 보다 우수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거기에 혈안이 된 엄마의 모습이 그 단어에서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 “뛰어 교육에는 열의가 있지만, 뭔가 좀 불편한 느낌이 없지 않구만” 하는 평가를 받는 게 현실이지요. 뭔가 자기아이에게 마음이 얹매어져 있는 듯한.

거기에서 타인보다 더 우수할 수 있도록, 성적을 올리고 올릴 생각으로만 가득한 것. 학교의 성적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지능검사라는 것도 있네요, 지능지수가 IQ가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혈안이 된 치맛바람의 어머니는 IQ 지수를 높이기 위해 지능지수의 문제집을 암기시키기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IQ 지수가 높아지고, 자신 아이의 머리가 정말 그 단계이지는 않지만, 그저 그 문제를 기억하고 풀었을 뿐인데, 참으로 명칭한 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지능지수라든가, 지능검사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남용될 것이네요, 미신과 같이. 이러한 치맛바람 어머니의 이야기.

이야기 중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중국에서는요, 옛날 한 시골엘뜨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는 매일 논바닥에 다녀 왔다 하네요. 아 지친다 지쳐 푸념해가며 말이죠.

어느 날 가족 중 한 사람이 도대체 왜 매일 밭에 가서 지쳐오는지 궁금한 나머지 밭을 살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어리숙한 시골뜨기가 매일매일 자신의 밭의 모종을 조금씩 조금씩 얼른 자라도록 끌어당겨 놓았답니다. 그러자 결국 그 밭의 모종들이 말라비틀어졌다는 이야기이지요. 이 이야기를 황태자전하와 부인에게 하였지요. 그러자 황태자전하께서 “아 그 이야기 맹자(孟子)에서 나오는 이야기구만.”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맹자란 옛날 중국의 공자가 쓴 논어였지요, 거기에 맹자라는 책이 있지요. 이것을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제왕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제왕인 책임자는 맹자를 확실히 공부하도록 명받았습니다. 이것은 관리가 되는 사람들에게도 지켜지도록 한 것으로, 중요한 책으로 전해져 오게 되었습니다.

그 맹자에 있는 내용이라고 황태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어쩌면 돌아가신 고이즈미신조(小泉信三) 씨

께서 맹자의 가르침을 이 황태자님께 전하신 게 아닌가 합니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어쩌면 아이를 키우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능을 향상시키는 것, 지성을 육성시키는 것을 문제로 하지 않고, 처음 말씀 드린 것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튼튼히 내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잡아 당기는 것이 아니라, 튼튼히 하는 것. 붕 떠오르는 것은 안됩니다. 어린이의 뿌리를.

그러므로, 우수한 어린이를 키우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머리가 좋나 나쁘냐의 문제보다, 이러한 정서적인 것을, 인간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그 대지에, 정착시키는, 뿌리를 튼튼히 내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런 것에 대한 풍성함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중요하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어리숙한 시골뜨기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치맛바람의 어머니들에게는요, 만약에 뿌리를 튼튼히 내린다는 의미가, 발달의 더딤으로 느껴지실지도 모르겠네요. 매우 막연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그렇지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교토의 제가 정말 존경했던, 기무라 모토모리 선생님인데요, 교토 대학에 계셨던 분이므로써, 제가 대학을 졸업 후에도 선생님과 많은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서 임시직교사로써 있을 때 즈음에 많은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시며 좋은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이야기인데요, 1938년이네요. 육해군이 문부과 학성(일본 교육부)에 압력을 가했고, 문부성조차도 하루라도 빨리 수재들을 세상에 내기 위해, 조기교육, 즉 축성(促成) 재배와 같은 교육을 대학에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즉 초등학교 5학년생에서 곧바로 중학생이 되는 것. 중학생도 4월생의 우수한 학생은 곧바로 고등학교에 진학시키는 것. 빠르게 빠르게 식을 교육에 적용시켰지요. 그것으로 대학에 있어서, 더욱이 그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을 즈음이었었습니다. 그때 기무라 선생께서 “어이 이토가” 한잔 마시며 “정부는 정말 명칭한 것을 하고 있다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울분을 토하시며, 교육이라는 것에 축성재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심한 분개심을 느끼시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육해군이 위세를 떨치는 때였지요, 그것으로 문부성이 선동하여, 각 대학에 축성재배의 방법을 간절히 요구하며, 또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졌지요. 그러므로 기무라 선생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은, 길을 돌아가게 하는 것과 같다고” 정말 좋은 조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옛날 고등학교를 1년 때 비정상적으로 낙제의 방법을 택했고, 2년째 때도 그리하여 3년이면 졸업할 것을 5년에 걸려서, 다액납세자가 되었네요. 학교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회에 나오게 되어서도 취직의 길이 없어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어

디로 가야 하나,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쯤, 철학이란 것을 접했을 때였습니다. 1935년이었는데 그때는 종교철학이란 것을 사람들이 거의 접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저는 교토 대학을 1위로 졸업하였습니다. 사실 좀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실제 정원이 2명밖에 없었지요.

저 이외의 그 한 명은 지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는 문책을 당해, 대형 짐수레에 무를 싣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계속해 나갔던 그런 시절이었지요.

그래서 학교를 나와도 갈 곳이 없었던 시기인지라, 임시교사로 일할 수 있는 교토의 제2 키누가사 초등학교의 임시직으로 있게 되었고, 그때가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 초학교의 코 문은 소승, 소승이 아니라 여자 아이들이었군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던 때, 소집영장이, 도토리 의 중기관총중대 (重機關銃中隊) 라는 곳에서 날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의 생활 가운데, 너무 고생했던 기억이 가득합니다. 철포와 기관총 등이 너무 무거워 들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무렵의 저의 본직은 돗토리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저는 옛 중학교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들은 농사를 대부분 짓고 있어서 총을 가볍게 메고 가볍게 달리고 있었지요. 그에 반해, 저는 우물쭈물한 형색으로 지내다 결국 몸에 이상이 생겨 입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저는 소집영장을 두 번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받고 난 뒤 “뒤로 돌아” 라는 구령을 따라 뒤 돌아보니 누군가 내 등을 치며 “집으로 돌아가” 라는 명령이 저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네요. 사실 그때 합격한 사람들은 모두 사망했으니까. 적전상륙으로 모두가 죽어나갔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살아 남은 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약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사실 심장에 약간 이상이 있는 상태입니다. 흔들흔들합니다. 어느 정도 병이 있으므로 제 몸을 챙길 줄 아는, 그래서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아.. 벌써 시간이 4시가 되었군요. 실례했습니다. 얼른 끝내기 위해 몇 가지로 간추려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교육애 (教育愛)

교육애라는 것은, 뭔가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것은 긴 시간과 함께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지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해 나가는 것이지요. 이러한 핸디캡을 가진 아이를 돌보는 것이. 다만, 산간벽지에 있는 사람의 경우를 마사키 (正木) 선생이라는 인물이 쓴 책이 있는데요. 소마쿤 (相馬君) 이라는 샌다이의 안쪽 산간벽지에 있는 선생과, 마사키 선생이 서로 주고 받은 편지 내용 안에 교육애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추천하고 싶네요.

요약해서 결론부터 말씀 드리다면, 소마 선생은 이 산간벽지

의 마을 사람으로써 부모로부터도 내 놓임을 받고 이런 분교지역에 학생들을 돌보려 하지 않는 현실상의 문제에 이런 상황에 분노하며 특히 그런 부모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소마 선생의 부부는 거의 사람도 없는 깊은 곳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젊은 부부였는지라, 급료도 매우 낮았지요. 소마 선생은 그 낮은 월급으로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아이의 책 교재를 사기 위해 먼 시내까지 나와 사주거나, 하였지요. 아내 몰래 생활비를 조금 축내, 비참한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돌보았고, 그 지역 사람들이나 부모들에게는 쾌짌한 마음을 품고 그 아이들이 품었지요. 아무리 주위 어른들에게 이야기 해 보았자 소 귀에 경 읽기와 같았고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생 속에 아이들은 더 소중해져 갔고, 아내에게 비밀로 하기까지 그 아이들을 일단 돕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이런 솔직한 심정을 적어놓았네요, 소마 선생은. 저는 교육자로서, 교육애에 불타오르는 계기를 이 책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내 뽕개쳐 있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무엇인가 큰 자극의 시작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감정적 느낌이란 것은 인간적인 것이지요. 실제, 인간 그 자체. 누구에게나 그런 인간적인 본질은 존재합니다. 학대 받는 사람을 본다면, 불쌍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만인공통의 기분일 것입니다. 설사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분노의 감정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점점 소마 선생의 마음의 한 켠에는 교육의 사랑이라는 것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교육애라는 순수성은 수준 높은 심경의 것을 자라게 합니다.

그는 마사키 선생과도 얼마간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가끔 소마 선생은 편지로 구체적인 내용을 실어 주셨는데, 그럴 때마다 마사키 선생은 거기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답장해주셨습니다.

진실로 훌륭한 사람은, 한 사람을 잘 키워내는 것으로, 교육자로서 키워 내어가는 과정, 진정한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탐구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정으로부터 사랑에 이르기까지의 것을 말합니다. 갑작스런 사랑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잠재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어딘가에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죠. 단순히 주관으로 이해타산을 셈하는 듯한 애정이 아닙니다. 혹은 분을 내거나 미워 하거나의 것 또한 더욱 아니지요. 우리들은, 실제로 자기 자신의 안에 체험된 애정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의 것이지요.

부모는요, 우리 어린이를, 물론 여러 부모가 있겠지만, 하지만 대체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상의 사랑이네요. 일반적으로 부모는 청년 이후와는 또한 다른 심경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아이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쏟아주게 됩니다. 그러한 원형 (原形) 이 있습니다. 사랑의 원형. 그것을 우리 모두는 갖고 있다 말할 수 있지요.

무재칠시 (無財の七施)

종교적 의미에 있어서의 사랑을 설명한 그리스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가’와 같은 어려운 주제를 이야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문제는 깊게 파고 들수록 더욱 더 깊은 문제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그 작업은 순화되어 가는 것이라고 알아 두고 싶습니다. 순화되어 가는 것.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의 이상향이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이 교육의 저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사람들과 사귀를 갖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 이리 가지 물질적인 매개로 인해, 마음을 전하거나 받는다든지, 혹은 자신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 안심을 느끼며 사람과의 사귀가 가능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든지, 여기에서 저는 ‘무재칠시’라는 표현을 적어보았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인간관계라는 것은, ‘무재칠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일생 마음에 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의미로 여기에 적어봅니다.

‘무재칠시’라는 것 설명해 볼까요. 무재칠시라는 것은 불교의 용어인데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으로써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의 사람이,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누구에게든 일곱 개의 모습으로 드러질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 초차, 공짜라면 양껏물도 먹는다는 식의 옛날의 격언이 있고, 내는 것이라면 허라도 내기 싫다는 식의 자린고비의 현대인이 많은 지금의 현실점에서, 허가 아니라 훨씬 더 좋은 것을 타인을 위해 내 놓을 수 있는 것은요, 사실 재산이 하나 없어도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것을 무재칠시라고 일컫지요.

첫째는 눈의 보시 (眼施) - 사람에게 따뜻한 시선으로 다가서기

둘째는 환한 얼굴과 즐거운 낯빛의 보시 (和顔悅色施) - 화난 얼굴이 아닌 생글거리는 얼굴이 가득한 모습으로 다가서기

셋째는 말씨의 보시 (言辭施) - 말의 아름다움을 뜻함. 소리칠 때의 목소리는 좋지 않음. 아이들에게도 착한 목소리로 다가서는 게 중요함.

넷째는 몸의 보시 (身施) - 근로봉사, 일하는 것이란, 건 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것

다섯째는 마음의 보시 (心施) - 감사의 마음. 만국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있는 표현

여섯째는 자리의 보시 (牀座施) -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이동수단을 탈 경우 어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일곱째는 방이나 집의 보시 (房舍施) - 한번의 잠자리, 한번의 식사를 베푸는 것. 한 그릇의 밥공기도 반을 나눠 베풀

고, 한번의 잠자리 또한 베풀 수 있지 않는가

‘이 아이들을 세상의 빛으로’와 ‘이 아이에게 세상의 빛을’의 다른 점은 먼저 ‘이 아이들에게’가 아니라 ‘이 아이들’...(입니다.)

순간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 선생님의 입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으시며, 오른손은 무엇인가를 지목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장시간의 강의로 인해 목이 쉬었을까 라고 생각하였다. 힘이 없는 말씨에 분명하게 들리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열심을 다해 이야기 하고 계셨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걱정 어린 모습으로 지켜보며 안절부절 하였다.

“의사를 불러야 하지 않을까...”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동시에 주최자인신 노리미즈 선생께서 연단에 오셨다. 창백한 원장선생님은 부축을 받으며, 밖에 있는 낡은 휠체어에 앉으셨고, 그럼에도 뭔가를 말씀하길 원하시는 선생의 이야기를 모두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잠시 후 선생님은 “무슨 일이 있었나”라며 마치 남의 일인양 물으셨다. 학원의 한 선생께서 “강의 중에 쓰러지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자, 힘없는 말투로 “한 잔하고 나면 괜찮아 질거요”라고 대답하셨다. 엄청난 일에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사한대 맞으면 괜찮아”라고 말씀하셨다.

이윽고, 의식이 돌아오셨고, 되풀이해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셨다.

“조금만, 조금만 더 합시다. 괜찮소 괜찮소... 이 아이들을 세상의 빛으로...”

그 목소리에서 강한 기백이 느껴졌다. 어지간히 ‘이 아이들을 세상의 빛으로’라는 말이 가진 진중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그 ‘을’이 ‘으로’반대로 쓰여진다면, 이 아이들에게 동정을 구하는 불쌍한 아이들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하지만, 선생에게 있어서, 이 아이들은, 생기 넘치는 생명력이 흐르는, 주변의 우리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력을 깨우쳐 주는 엄청난 인격 그 자체임을 말씀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세상의 빛’이며, 세상의 빛을 또한 깜짝 놀라게 해야 하기 위해, 우리들의 노력을 또한 요구하는 것이 원장선생의 최후의 호소가 아니었을까.

얼마 후 의사 선생이 오시고, 선생은 별실로 옮겨지시어 주사를 맞으시고 의식이 돌아 오시는 듯 했다. “이제 괜찮아”라고 하시며 나를 당기실 때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리기를 2시간 쯤, 극도의 긴박한 시간을 지나며, 우리는, 이게 헤어짐을 준비해야 함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 신입사원들에게 있어서 이 날의 강의는 최초이자 최후의 강의가 되어 버렸다. 직접 선생께 조언을 얻을 기회조차 4-5회 정도에 지나지 않을 만큼 원장선생님은 그만큼 바쁜 시간을 보내시고 계셨었다. 자신보다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시고, 무엇보다 ‘이

아이들' 을 위해 헌신을 다하셨다.

선생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졌던 것에 대한 깊은 회한과 무엇보다 깊은 참회를 마음 깊이 새겨본다.

자기 실현의 교육 (自己実現の教育)

- 중증심신장애아교육의 실천을 통한 배움 -

심신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쩌면 특별한 시선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일상적으로 받았을지도 모른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 가지의 형태로 흔히 있는 일이었다. 어머니들이 그러한 차별적 시선 느끼며, 매일을 살아가고, 이웃의 아이들로부터 그들의 부모들로부터, 또한 학교의 선생들에게조차 느껴질 정도의 삶 속에 이를 악물며 버텨 살아가는 삶이었다. 지능의 발달에 장애가 있다는 것이, 도대체 왜 그렇게 유별난 시선으로 바라봐져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고 보더라도, 핑계라는 이유로 어디든 언제든 그러한 것은 숙명이지 않나, 세상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냐는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현실에 그저 가로막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달리 도리가 없는 부모들은 지금껏 이런 현실에 체념한 듯이 홀로 슬픔에 잠겨 지내고 있다고 본다.

이런 부모들의 자각은 지금으로부터 15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신박약의 아이를 키우는 세 명의 어머니들이, 그 당시에는 드물었던 도쿄 간다(東京神田)의 어떤 특수학급에 아이들을 통학시켰고, 그리고 서로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입장에서의 마음을 나누게 되었다. 이윽고 이러한 슬픔을 갖고 있는 부모들을 불러모아,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슬픔을 극복하며, 이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열리라는 염원을 가지게 되었다.

작은 싹이 땅에 떨어져 움이 트게 된다. 그것은 15년만에 나무가 되어 성장하여졌다. 그 부모들의 모임인 '정신박약아육성회'가 결성된 것이다. 또 다른 명칭은 '손을 잡은 부모회(手をつなぐ親の会)'였고, 15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 3번의 슬로건을 걸기에 이르렀다.

'경증장애를 가진 자에게는 자립을, 중증장애를 가진 자에게는 보호를,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보장을' 이란 슬로건이었다. 최근에는, 그것에 하나 더 첨가되어, '조기발견과 조기대응' 이라고 불리는 슬로건이 걸리었다.

'경증장애를 가진 자에게는 자립을' 이란 표현은 이해하기 쉽다. 생산사회에 생산적인 사회인으로써 사회복귀를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중증장애를 가진 자에게는 보호를' 이란 표현은 조금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 게다가, 이 점이 확실히 어떤 점으로써 파악될 것인지, 실제로 나의 인생에서 또한 사회의 본연의 자세에서도 관계가 있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중증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은 사실 절망적인 고통의 나날 속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책의 순서가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비교적 경증의 경우에 놓인 사람에도 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것에, 투자하여도 사회에 되돌아 오지 못할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대책의 수립이란 뒤로 미뤄질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 그러한 생각을 뒤집어서, 중도대책이 진행되어 나간 것은, 일본의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부모들의 열렬한 염원이, 관계자들의 심혼을 흔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 경제도 물론이거니와, 기도와 염원을 집결하고, 아이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앞장서 나갔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가 성장했다고 말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중증장애를 가진 자에게는 보호를' 이란 부모의 염원은, 여러 가지 형태로 결과를 만들어내었으나, 그 과정 중에서 부모뿐만 아니라, 학교의 선생도, 시설의 직원들도, 관청의 직원들도, 그러한 학교 시설을 받아들이는 지역의 주민들도, 각자가 자신의 영역에서 노력하고 배움을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무엇을 구체적으로 배웠느냐고 한다면, 이 세상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 중증 중증장애아가 실제로 한 명 한 명이 돌도 없는 소중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써, 이 아이의 생명은 정말 소중하다는 것이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이 아이'라는 살아있는 생명, 개성적 존재로써의 아이로써 살아가는 모습 안에서 공감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저 산송장 같이 보이는 중증장애의 아이가, 그저 무위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숨쉬는 것은 있는 힘껏, 노력을 기울이며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앞에 이르기 위해, 우리들은, 지금까지 그 아이의 생활의 깊숙한 곳까지 볼 수 없었음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중증의 장애는 사실 이 아이들뿐 아니라, 이 사실을 볼 수 없었던 우리들의 눈에도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 뇌성마비로 오십 평생을 누워있는 어떤 남자가, 하루에도 기저귀를 몇 번이고 갈고 있다. 기저귀를 갈 때 그 아이는 혼신의 힘을 다해 자신의 허리를 들어, 보모에게 도움이 되려고 했고, 그 노력이 보모의 손에 전해진 순간, 보모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일에 대해 정말 보람차고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다.

어떤 시설에서 중증장애아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언덕의 위에 있는 학원에서는 수도세가 비싸지만, 물을 흘러 보내고 그 곳에 모래밭의 모래까지 함께 흘러 보냈는데, 거기에 태양 빛이 반사되어 반짝반짝 하였고, 그게 몸에 비치는 것이 너무 즐거워 그만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보모는 명한 표정으로 바라보다가도 이윽고, 이런 것들이 아이의 마음에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만들어 줄 거란 느낌을 받게 되었다. '중증장애를 가진 자에게는 보호를' 이라고 하지만, 우리들은 보호라는 이름으로 굶겨 죽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만약 그런 의미로써 보호라는 뜻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정의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중증의 장애를 가진 이들을 중심으로 한 집단거주지가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그 집단거주지가 세간으로부터 격리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애를 편안히 보내게 하는 것은 본인에게 행복이 될 것이고, 건전한 사회를 위해서 손해가 없는 생각이라는 것에 부합하기 위해 집단거주지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심도 깊게 생각을 고쳐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사상으로 집단거주지가 만들어진 시대가 있었다. 영국과 같은 사회복지의 선진국에서도 있었던 30-40년전의 옛날에, 이러한 사상의 집단거주지가 존재하였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집단거주지라고 하여 그 사람들에게 사회에 부적응하기에는 단순한 이유로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하나의 작업으로써, 유기적 집합체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싶다. 그 의미로써 큰 사회복지의 체계의 하나로써 위치하여야 함을 느낀다. 혹은 인간으로써의 형성이라고 말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듯하다. 따라서 집단거주지가 종착역이 아니라, 그것으로 출발역이며, 인간의 성장에 긴 경영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보호는 자립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보호 안에 자립이 싹터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그 돌봄이야말로 존중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장황해지는 듯하나, 이 아이들이 불행한 존재로써, 세상의 한쪽 구석에, 산협의 골짜기에서 햇빛도 보지 못 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 단순한 호소 정도로 끝나서는 되지 않는다. 이 아이들이 어떠한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개성적 자기실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 자기실현이야말로 창조이며, 생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들의 소망은, 중증의 장애를 가진 이 아이들도 훌륭한 생산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 아이들에게 세상의 빛을’이라는 지향적 정책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스스로 빛을 비추는 존재이므로, 더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 아이들을 세상의 빛으로’이다.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인격발달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그 장애와 싸우며, 장애를 극복해 나가려는 노력과 함께 그 인격이 풍성히 자라게 된다. 빈곤하고 속 좁은 인격이 아니라 풍성하고 따뜻한 인간으로 자라나는 것. 3세의 정신발달에 멈춰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그 3세라는 발달단계의 안에서 무던히 충실을 다해가며 살아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생애를 걸고 그 3세의 발달단계에서 충실을 다해간다면 그로써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이 가능해지도록, 제도나 체제, 기술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한 일보 더 전진이 모든 교육의 공통의 문제점이지 않을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지라 사실 말로 하는 것조차 민망하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이 아이들이 자기실현이라는 생산활동이라는 것을 하는 것에, 지금까지 서술하여 온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

나의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중증의 심신장애라는 한계의 상태에 놓여있는 아이들의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이전에 우리들의 사회공리주의적 관점이 반성될 수 있도록, 심신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생산적 생활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인식에 의해 사회가 눈을 뜨고 사상의 변혁까지 생산되어 간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사람을 이해한다는 깊은 의미를 탐구하고 그 가치에 눈을 떠 이해의 중심으로써 사회형성의 이념이 형성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러한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의 순수한 염원이라는 것은 이 아이가 정신박약이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체부자유자에게도, 맹인에게도, 심장병을 가진 이에게도, 중증에게도, 좀 더 넓게 보아서 장애가 있고 없고에 관계하지 않고, 모두에게 공통의 염원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들도 모두 나눠져 버리지 않고, 자각한 사람들이 공통의 염원을 함께 일치시켜나갈 때 각각의 지역사회의 큰 운동의 중심으로써 역할을 이루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을 또 다시 가져본다. 신분, 경제, 인종의 불평등이나 차별의 극복이 인류의 과제가 된지 오래된 지금의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난 능력의 차이로부터 오는 차별관의 극복에 새로운 과제로 보는 눈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가, 이 과제해결의 발판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결국, 이 아이들의 존재라는 그 자체가, 우리를 자신과의 대결에까지 우리들을 맞서게 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이 아이들의 앞에 서서 교육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하여야 한다. 뒤이어 이 문제는 대강의, 교육에 있어서의 단순한 문화재의 전달을 한다는 입장을 넘어서 깊은 인간의 교육에 이르기까지의 깊은 통찰을 통해 과제를 발견해나가고, 필시 교육이나 복지의 뿌리 깊은 곳까지 우리들이 탐구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한다.